

2018년 8월 2일, 제주시 도남동 강인생 씨 자녀택, 이효순 조사.

강인생(여, 1928년생, 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)

-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출생, 제주4·3사건을 피해 애월읍 곽지리와 서울 등지에서 잠시 살다가 애월읍 어음리에 정착하여 50여 년째 살고 있다.

- 줄거리: 재주가 좋은 허웅애기를 저승에서 일을 시키려고 강림차사가 데리러 내려오는데 아무도 숨겨 주지 않아서 결국은 저승으로 불려 가서 베를 짜게 되었다. 베를 짜면서 이승에 두고 온 자식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저승에서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이승 집에 가도록 허락을 하였다.  
동네 할머니는 죽은 허웅애기가 밤에 일하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저승에 못 가도록 가두었다. 강림차사는 내려와서 지붕 위에서 허웅애기의 혼을 빼앗아 그때부터 이승과 저승을 오가지 못했다.

[제보자] 허웅애기가 막 재주가 존 사름이주기. 경허난 저승 일 시키젠 돌앙 가 불엿주기.

[조사자] 누구가 돌앙 가마씨?

[제보자] 저승에서 왕 돌앙 간. 경허난 돌앙가젠 허난, 그 사름은 재주도 좋고 얼굴도 막 곱고 허난. 저, 고사리 껌으레 간. 돈고사리 생고사리 골리 잡안 오독독이 껌어다가 삼 년 묵은 단 장물에 오 년 묵은 찹지름에 오시록 볶아 된 앞동산에 뒷동산에 건불리레 나간 보난 강림차사가 오는 거라. 허웅애기 잡으레. 경허난 허웅애기가

“어디레 옴이우파?”

“허웅애기 잡으레 가는 사람이우다. 허웅애기 집이 어딜로 어떻 허영 갑니까.”

허난, 허웅애기 집은 그 사람이 허웅애기난 7리치질 앓을 거주기. 제대로 아니 골안

“올로 넘영 절로 넘영 갑니다.”

탄 디로 가르쳐 뒀에 허웅애기 와랑와랑 집으로 돌려완 어멍, 아방신디

“아이고, 날 잡으레 앓우다. 날 살려 줘서.”

어멍, 아방신디

“날 뭇로 나 줘서.”

어멍, 아방도 말은

“닌 가라.”

허명 안헤 져주기. 경허난 할망신디 강

“할마님아, 할마님아, 날 잡으레 왔우다. 날 어디레 곱져줍서.”

“는 느대로 가라.”

허영 안헤 주고 허난 하르방신디 가도 그거 따시 안헤 쥘. 말도 헤 간다 오도  
똑이 안헤 주난 허웅애기는 아무데 가도 어멍신디 가도 안헤 줘. 하르방신디 가  
도 안헤 줘. 골목드레 확 곱으난

“나 이디 곱앗젠 허지 맙서.”

강림차사 소문 들영 온 거라.

“허웅애기 어디 갓수가?”

골목드레 곱앗젠 헨 거라. 골목에 강 오꼴 돌앙 가 불언. 경허난 이제 허웅애  
기는 돌앙 강 그디 돌앙 간. 막 재주가 좋고 얼굴도 곱고 일을 잘허는 사람이난  
베를 짜렌 허영 베를 짜당 보난 눈물이 나는 거라. 아기들이 한한헌디 나만 오랑  
눈물이 베에 눈물이 팔팔 허난

“어떻 허난 영했이?”

허난

“열다섯 난 아덜에, 열 살 난 아기에, 다섯 살 난 아기에, 세 살 난 아기에 몬  
딱 집에 놔 뒀 오난 눈물이 베에 젖었우다.”

허난

“게난 밤에랑 가곡 낮에랑 오랑 일허라.”

허난 밤엔 오곡 낮엔 가곡 헛주게. 동네 할망은 오랑

“아니, 죽엇젠 헨 사람이 어떻게 허영 일했이니?”

허난 영영허연 밤에 오랑 허곡 낮엔 가곡 허렌 헛젠 허난. 그 말을 어디 하간  
디 굴아 부난 동네 사람이 못 가게 허연. 고팡에 갇혀 불언. 갇혀 못 가게 허난

나 보내 주렌 막 울었이난 강림차사 또 온 거라. 왕 보난 고팡에서 울었이난  
글로 와그네 집 겹데기로 칼로 질령 대망일 빠아 가 불고 몸은 그디 죽영 싣고.  
할 수 엇이 죽어불고. 저승에서 그 사람 혼만 돌아가 불고. 그 집 아이들은 어멍  
은 낮에 가고 밤에 오논디 알아저게. 저승 강 오지도 못 허고 집에서 아이들만  
살당 어떻게 헛인지 모르쿠다게. 경헛이난. 재주가 좋고 얼굴도 곱고 막 허난 저  
승에서 욕심 내언 젊은 때 돌앙 가 불언.

- 핵심어: 허웅애기, 강림차사, 베짜기, 재주, 눈물, 혼, 저승, 아기, 이승, 고팡, 밤, 낮